

다쏘시스템, 5 세대 BMW eDrive 생산을 위한 디지털 공급망 구축

- 다쏘시스템, 독일 뉘른베르크, 라이프치히, 레겐스부르크의 BMW eDrive 시스템 공장에 공급망 계획 및 최적화 솔루션 '델미아 퀴닉' 공급
- 복잡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개선으로 제조 공정의 핵심 성능 지표 향상
- 차량의 정확한 부품 수요 예측, 높은 생산성과 재고 및 비용 절감

대한민국 서울, 2021년 10월 20일-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BMW그룹과 생산 계획 및 일정 조율 과정을 디지털화 하여 공장 성능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BMW는 eDrive 부품의 생산과 조립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쏘시스템의 '델미아 퀴닉'을 eDrive를 생산하는 독일 뉘른베르크, 라이프치히 및 레겐스부르크 지역에 위치한 eDrive 생산 시설에 도입했다. 델미아 퀴닉은 공급망과 운영계획 및 최적화 솔루션이다.

BMW는 전기차 모델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 조립 라인에서 진행되는 생산계획과 일정 조율에 델미아 퀴닉의 가상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게 되었다. BMW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순수전기차 5 세대 BMW eDrive는 확장형 모듈로 설계되어, 차량의 구조, 생산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휘발유 사용 없이 전기만을 사용하여 주행이 가능한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보다 진보한 기술을 사용한다. 델미아 퀴닉 솔루션은 이러한 차세대 차량 생산 과정에서 설치 시간과 재고를 줄이고 생산 중단 등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델미아 퀴닉 솔루션은, 독일에 위치한 BMW의 모든 공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BMW eDrive 생산에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의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 부문 로렌스 몬타나리 (Laurence Montanari) 부사장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객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EM 업체들은 이 새로운 시장에 최적화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며 "특정된 요소 부품을 적시에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락된 부품은 자동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망의 민첩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많은 양의 관련 데이터를 더 잘 관리하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연결된 새로운 생산 계획 방식으로 공급 부족의 위험을 감소시킬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쏘시스템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BMW는 더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 결정과 생산성 강화,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정확한 핵심 성과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협업 3D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140여 개국에서 29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코리아 소셜 채널]

다쏘시스템코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assaultSystemes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카카오톡: <https://go.3ds.com/q70>

다쏘시스템코리아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3DSKOR>

다쏘시스템코리아 블로그: <https://blogs.3ds.com/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3ds.com/ko/>